

# 가축질병 치료보험 8월 도입

###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 - 농·축산... 쌀·밭 직불금 9월 지급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의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오는 8월 도입된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직불금)은 두 달 앞당겨 9월에 조기 지급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과 달리 질병 진단과 치료비 보장이 목적이다. 사람으로 치면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다. 농가에 수의사가 월 1~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국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하며, 올해 예산은 17억 원(보통 15억 원·효과 분석 2억 원)이다. 소·축종에 한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벌인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9월에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이 1ha(헥타르·1ha=1만㎡)당 평균 100만원, 밭 직불금이 평균 50만원, 조건불

리지역 직불금이 평균 60만원이다. 특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의 의무 적립(20%)을 없애 자치단체와 마을 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현행보다 1ha당 최대 12만 원을 더 챙겨갈 수 있게 된다.

◇농자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 농자취득자격증명 서류를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야만 했다.

◇수입축산물이력제도, 수입폐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 12월 28일부터 이력관리 대상 수입축산물에 수입폐지고기가 추가된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는 수입·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허위 원산지 표시나 불법 도축·가축전염병 등 문제 발생 시 이력 정보를 추적해 신속한 회수·방역 등의 대처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지금껏 수입폐지고기에 한정돼 있었다. 수입폐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자와 식육축산판매업자,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정부로부터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계시해야 한다. 위

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 7월부터 GPS를 장착한 뒤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축산차량에 난좌, 가급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급 출하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이 추가된다. 이를 어길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 고령의 은퇴농업인들이 지역 농·축협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더라도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 측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교육 지원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협 사업 이용에 따른 이용과제 또는 출자배당도 받게 된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 그간 민간에 위탁해온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취급제한 기준 교육을 9월 6일부터는 농촌진흥청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또 11월부터 농약 판매상은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태 기자

# NH농협은행 'NH x 카카오페이통장' 인기몰이

### 간편한 가입절차·금리우대 등 큰 인기 얻으며 14만좌 돌파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NH x 카카오페이통장'이 지난 5월말 기준 출시 6개월 만에 신규 계좌 개설 14만좌를 돌파해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NH x 카카오페이통장'이 지난 5월말 기준 출시 6개월 만에 신규 계좌 개설 14만좌를 돌파해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NH x 카카오페이통장'은 금융권 최초로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맺은 전용통장으로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 라이언이 그려진 실물 통장(총 2종의 전용통장 공급)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NH x 카카오페이통장' 카카오페이 출금계좌로 등록하여 이용할 경우, 최소 충전단위에 맞춰 미리 금액을 충전할 필요 없이 실시간 출금을 통한 간편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거래 월2회 이상 또는 올원뱅크 회원으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잔치금 융수수료면제 △연1.0%금리(일별잔액

100만원 이하까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수시입출식 예금통장과 달리 NH x 카카오페이통장을 이용하면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내세워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시장의 모바일 이용고객 집중공략한 점이 고객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김영태 기자

특히, 5월말 기준 이 상품 가입고객은 30대 이하가 64.9%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의 호응이 크다. 이 통장을 기점으로 NH농협은행의 1020세대 고객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연령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을 정도이다. NH x 카카오페이통장 전국 영업점, 금융상품마켓, 올원뱅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규 고객은 추후 영업점 방문 시 실물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 내 카카오페이"금융제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 ps://banking.nonghyup.com),고객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지역본부, 전북원예산업 종합계획 목표 3420억원 달성 결의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8일 순창군종합공동사업법원에서 통합마케팅 사업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하반기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했다. 전략회의는 2018년도 통합마케팅 및 원예산업 종합계획 상반기 사업실적을 분석하고 올해 목표인 3,420억원 달성 결의하는 한편, 농산물 수급안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지채소 5대 품목(무,배추,인파,마늘,고추) 재배면적 전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농산물 수급불안 해결, 농가소득 증

대에도 기여했다. 지난 2년간 다소 정체 중인 전북통합마케팅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전북원예산업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하여 전라북도·농협경제지주본사·전북농협·통합마케팅조직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도 진행했다. 또한, 전북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농협본부장은 "통합마케팅, 원예산업 종합계획 목표달성을 통해 전북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



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전북농협도 통합마케팅 사업확대로 농가소득 5천만원 조기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지방우정청, 5월 'Best 미소천사' 전주 노송우체국 이미라 주무관 선정

전북지방우정청 장은 '5월 Best 미소천사' 전주노송우체국 이미라 주무관을 선정하고, 28일 '찾아가는 시상식'을 통해 표창패, 인증배지를 수여했다.



5월 BEST 미소천사 수상된 이미라 주무관은 "고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고객민족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성실한 직원으로 "앞으로도 고객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김경일 우정계획과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감동을 이룰 수 있다고

# 전개공, 순창 인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대행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순창군 인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행을 위해 순창군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한다.

순창군 인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약화된 면소재지 기능회복과 배후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5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태양광카로 등 설치, 작은목욕탕 증축, 다시청춘관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 복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순창군 대행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정비사업 노하우 축적, 직원 역량 강화,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